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교회설립23주년 기념주일 메시지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르러 교회에 대한 대단원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며, 각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몸의 특징은 하나 됨입니다. 몸이 서로 나뉠 때, 그 몸은 아파할 수 밖에 없고,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게 됩니다.

23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서울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였고, 서울교회가 하나 됨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 됨을 견고하게 할 때 이뤄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설립23주년을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마음껏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임직자들을 위한 권면의 글

# 충성된 종은 '비움'과 '더함'으로

## "오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신 장로 (원로장로)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일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제 장로가 되었으면 그 때부터 신분이 바뀌고 사역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 잣대에 맞추려면 누구도 합격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는 그 잣대에 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일꾼으로서의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장로의 직분입니다.

특히 사탄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지면 본인 뿐 아니라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장로는 24시간 경고등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필 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형편을 최고의 눈높이로 하고 지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의 사역은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동료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요구되고 동의하고 찬성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주장이 최선이 아니었다고 겸손하게 임해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성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임장로는 선배장로의 모든 것을 추적하고 깨닫고 본받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배장로의 실수나 허점을 비웃기 전에 자기 눈 속의 들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존재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존재이고 비워두면 안되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나를 나 되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약하면 나도 무너지고 교회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위험수위를 달고 다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과 기도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장로는 교회에서 숨어있을 수 없고 드러나 있어야 하기에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언행심사가 조명을 받는 자이므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인데 장로쯤 되면 30배 이상은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로 바뀐다면 장로된 사명에 부끄럽지는 않게 됩니다.

오늘의 장로장립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사명이요 책임 있는 의무인 것입니다"



정병무 장로 (은퇴장로)

장립식 약속례를 할 때 안수 받는 향존직 임직자에게 안수위원들이 당부할 때마다 "충성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함축된 이 말 한마디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계급조직이 아니고 직분조직인 교회에는 향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평생을 유지하는 직분이 전자이고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후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안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안수위원을 통하여 받는 자에게 직접 임하시어 맡은 자로서 택함 받는 의식이며 향존직으로 세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사명이요 책임 있는 의무인 것입니다. 기동 같은 일꾼으로 세움 받을 피택 장로, 집사, 권사님들에게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세워가야 하며,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며 헌신하고, 선교회와 전도회를 통하여 복음전파의 일익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싫으면 외면하고 좋으면 동참하였던 낯은 헌 옷은 벗어 던지고 의무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 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그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한 결 같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도를 따라 더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향존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첫 단추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첫 번째 충성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감히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설립 23주년 기념주일 임직식을 맞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 임직자들

“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전 4:2)  
”

### <장로> 3명

최형열 김금준 최차순

### <집사> 58명

양원호 안강수 문흥식 박명규 오세백 홍두화 이종열 김동진1 민병환 옥상현 박원일 민영기 유태왕 한진수 윤자영 김영선1 임태관 한건수 강재호2 양동덕 김효택 김웅기 김선석 유운상 이덕성 임병석 김홍기3 박용성 박동우 김치삼 문경덕 최병무 정현구 정남진 김영규1 전봉길 조웅기 홍규석 민경철 신호용 서준섭 김종우 장 현 장인수 송성태 전훈덕 문동진 임대중 안치영 김주만 정승균 유인재 홍성모 김종근 김도연 이선호 임승한 강재훈

### <권사> 85명

유덕자 유혜숙 문옥일 김미숙5 전희정 김명애 노명자 김은숙6 진영숙 최순례2 문수자 김태옥 이명숙3 고영진 홍영미 곽태수 정영애 황난옥 조인순1 조영미 장성자1 조순덕 김명희3 김미선2 김경복 정기자 박정란 고은옥1 문영희 최예순 최미경 윤종희 이영임 한혜경 황영희 이영미 주유경 송민정1 이유희1 김미재 이선희5 김정미1 이경혜1 김정숙3 강은경 신혜진1 성기원2 김진희5 최순정 장정옥 배경옥 이유성 최복희 한경신 표현희 송행희 고광미 김은희3 백난희 이경희3 정수진 신명희 정미애 석춘희 백운선 박미경5 이승자1 태경숙 전인숙 김정숙6 임명숙 안명심 박수옥 우미란 석상화 백승경 윤현미1 김미영3 최영경 남현주 김정희10 백경화 송종순 안선희 김성은5



입직을 받으며 - 장로

#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최형열 피택장로

23년 전 차디 찬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 속에 세워진 서울교회,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생각해 보니 부족한 자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니다.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임직하게 되었으니, 전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에 전력하며,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며, 사랑의 빛진 자의 심정으로 주어진 사명 따라 청지기로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주의를 빼앗으려고 다투는 많은

산란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처럼 하늘에서의 제 지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서기관들처럼 정교한 신학논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유다처럼 예산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발 아래로 오라 명하소서. 거기 벽찬 가슴으로 앓아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장로로 임직함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한알의 밀알이 되어 더욱 기도하며 섬기고,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직을 받으며 - 장로

# 순종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김금준 피택장로

만사되지 못한 부족한 저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모범인 서울교회 당회의 일원이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리며 선배 장로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항상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교회의 곳은 일에 솔선수범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세대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교회와 세상에서 마음껏 그 꿈을 펼치고 이루어 나가는 교회, 세상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하는 교회, 현대인들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스마트한 전도와 선교전략을 이끄는 교회, 북한인권운동지원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개혁되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직을 받으며 - 장로

#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최치순 피택장로

죄로 죽었던 이 죄인을 만세 전에 택정하시어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서울교회로 부르시어 장로로 세워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영적 소경 같은 저를 오래 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눈물어린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도해주시는 서울교회 모든 교역자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혼신의 노

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는 자세로 서울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않으며, 다음세대의 부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자세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품위와 질서 가운데 솔선수범하는 무익한 종으로 서울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임직을 받으며 - 집사/권사

# 교회의 유익과 덕을...

## 유윤상 피택집사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안수집사로 택함을 받게 되면서 저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과 지혜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은혜로운 명령을 받들 충직한 종으로 삼으시려 선택하셨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꾼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행6:3~4)”라는 말씀에 저를 빚대어 보면 볼수록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게으른 자 일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절반의 반, 아니 그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해내야 한다는 걱정 또한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부족함은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교회와 성도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14주에 걸쳐 저희는 2014년 피택집사 임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저희를 힘들게 이끌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도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4:1~2)” 이 말씀을 또한 새기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집사직분을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 곽태수 피택권사



하나님께서서는 부족한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4주 동안 새벽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피택자 교육을 통해 일꾼의 자질과 서울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배웠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거룩한 일에는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어디로 보내든지 그곳에서 유익과 덕을 세우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사님을 돕고 순종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 지어다”(마25:21)라는 말씀같이 주님께 칭찬 받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의료선교

# 제 4회 의료인의 밤



정철웅 집사 (의료선교회 총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2011년 4월, 제1회 서울교회 의료인의 밤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의료인의 밤은 의료인 뿐 아니라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성도들이 매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 의료선교의 방향성을 놓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마태복음 9장 말씀뿐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예수님의 3대사역을 가르치시고(teaching), 복음을 전파하시고(preaching), 병을 고치시는(healing) 일로 요약하여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세우는 일은 사도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선교의 정석(定石)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서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지상대명령(The Great Commission, 마 28:16-20)에 대한 순종과 만민에게 전도(World Evangelism)라는 서울교회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박진영(외과, 방글라데시), 이재훈(외과, 마다가스카르)의료선교사님을 포함하여 60여명의 선교사

님들을 국,내외 곳곳으로 파송하여 섬기고 있으며 매년 하계, 동계비전트립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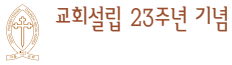
서울교회 의료선교부는 2009년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시작으로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매년 해외단기의료선교를 나가고 있고 2011년부터는 의정부 안디옥열방교회(김종일선교사사무)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료사역을 격달로 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 의료와 이,미용, 문화공연 등 여러 복합적 사역을 통해 농어촌 교회부흥을 위해 힘쓰고자 계획중입니다.

이번 제4회 서울교회 의료인의 밤에서는 앞으로 지속될 이러한 서울교회 의료선교의 방향성을 놓고 여러 교회의 의료선교 리더들과 선교사님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히 키르키스탄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순신(가명,치과)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사가 보는 해외비전트립에 대한 주제발표와 온누리교회 의료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윤상엽집사의 국내의료선교사례를 듣고 패널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29일 토요일 5시부터 있을 이 모임은 의료인들 뿐 아니라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열려 있으며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도적 신앙, 종교개혁 정신으로

어두움과 광기의 난무를 뚫고 '한국교회 갱신'의 횃불을 치켜든 성도들이 있었다. 사도적 신앙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 '갱신한 교회'가 아니라 '날로 갱신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무릎을 꿇었다.

철저한 말씀 중심의 설교자요,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로잔 정신 구현에 헌신한 복음주의자 이종윤 목사님과 함께 1991년 늦가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에 '서울교회'의 간판을 걸고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의 비전을 좇아 새 출발을 했다.

그리고 달려온 20 여년은 숨 가뻐다.

전 세계 150개국 영적 리더를 훈련시켜 자국 복음화의 기수로 삼은 '김치(KIMCHI)세미나,' 전국에서 온 연인원 만 3천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영적 활력을 고취시킨 '목회자세미나,' 농어촌 교회 부흥을 위한 '농어촌 100교회 운동,' 군 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운동,' 전 세계 80여명의 선교사 파송, 새벽을 깨우며 영적 전사로 무장시킨 '흥해작전,' 거룩한 낭비를 표방한 사랑의 '바자,' 그리고 성경 1,000독 대장정, 성경 필

사 등 선교와 교육과 구제를 위한 수많은 거룩한 사역의 연속이었다.

스물 네 살 청년으로 크는 동안 서울교회의 역동적인 변화는 한국 교회가 괄목하며 지켜 본 경이로움이였다. 아무도 엄두를 못 내던 IMF 외환위기 시절 온 교인의 기도와 헌신으로 예배당을 건축했고, 국내 교회로는 2번째로 대형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으며,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아가페타운과 호산나학교 설립으로 장애인 사역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2009년, 우리는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님을 만났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 박노철 목사님은 다락방 부흥과 다음 세대를 향한 열망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감수성을 자극하며 '스물 네 살 청년 서울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여년 축적된 영적 에너지로 새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젊은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독수리의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하고자 한다.

김민철 집사(편집부)



- ① 교회설립 1주년, 사명자대회
- ② 논현동 시절 예배 장면
- ③ 대치동 새예배당 터를 닦다
- ④ 교회설립 2주년 기념예배 후
- ⑤ 새예배당 입당예배
- ⑥ 새예배당 입당 후 첫 송구영신 예배



## 우리의 잔치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 해, 늦가을  
가파른 시간 속에  
푸르른 몸 쪼개어 건너온  
여호와의 밤

발교되지 못한 반죽그릇  
어깨에 메고  
맨발로 달려온 세월  
얼마런가

가물은 땅  
영적 근육으로  
새벽 허리 질끈 묶고  
눈물로 하늘 구르며  
십자가 로(路) 횡단하는  
스물 넷, 늙은 청년  
서울 교회여

첫사랑  
들끓는 심장으로  
하늘축 불 당기어  
촛대마다 불을 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계절  
우리의 잔치는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도  
세상의 높이 들린  
예수 깃발  
서울 교회여

온 몸으로 진동하여  
당신의  
손, 발 못 박는 소리  
가슴 가슴마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 교회설립 23주년 기념 주일 및 항존직 임직식

13대 장로: 3명 / 14대 집사: 58명 / 13대 권사: 85명

오늘은 교회설립 23주년 기념 주일이며 항존직 임직식이 있다.

지난 5월 18일(주)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13대 장로 3명, 14대 집사 58명, 13대 권사 85명

이 각각 선출되었다. 피택 된 이들은 5월 24일(토)에 시작한 교육과 훈련을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14일(금) 당회고시 및 면접을 모두 마쳤다. 임직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기도한다.



# 스테반회 총회

12월 4일(목), 101호

스테반회 총회가 12월 4일(목) 오후 6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스테반회원 전원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 바란다.

# 살롬, 제1, 2권사회 총회

12월 3일(수), 101호

살롬, 1, 2 권사회 연합총회가 오는 12월 3일(수) 오후 1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신임 권사를 포함한 권사회 회원 전원은 이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3일(주) 서울교회 설립감사예배 및 항존직 임직예배 설교 24일(월) 나눔과 기쁨운동 상임대표 취임감사예배 설교 26일(수) 미래한국 이사회참석 28일(금) 감찰청 기념재단 공동회장단 회의소집한다.

■ 신용식 장로는 전국장로연합회 총회에서 내년도 전국장로회임원(회의록서기)로 선출되다.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피택권사(1부예배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카포 크누아 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 11월 29일(토) 오후 5시,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홀

■ 득남 : 15교구 신재호 성도 김나현 성도 (신용식 장로 김신영 권사의 차남 가정)

■ 주일식당봉사 :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11.23) 이삭선교회 도르가전도회(12.7)

■ 금주의 식사 제공 : 식사, 과일, 떡 제공 (임직자일동)

# 2014사명자대회 승전보고

다음주일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는 해마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진행함으로써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 오늘 기쁨과 감사로 맞고 있다.

이에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4년 사명자대회를 10월 5일(주)~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시행하였다.

24시간 기도, 다니엘의 기도 등 기도운동과 마음에 품고 있던 VIP를 전도하여 『VIP 초대 새생명축제를 개최』 하였다 또한 지난 주 17일부터는 특별새벽기도로 「복 있는 자의 삶」(마 5:12)이란 주제로 모였다. 이에 감사하는 승전보고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다.

# 제 4회 의료인의 밤

11월 29일(토) 오후 5시, 601호

'제 4회 의료인의 밤'이 11월 29일(토) 오후 5시 601호에서 열린다. 지난 의료선교 사역을 결산하며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대하여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의료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된다.

대상은 서울교회에 등록된 모든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의대 및 간호대 재학생,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다. 관계된 성도들은 이 뜻깊은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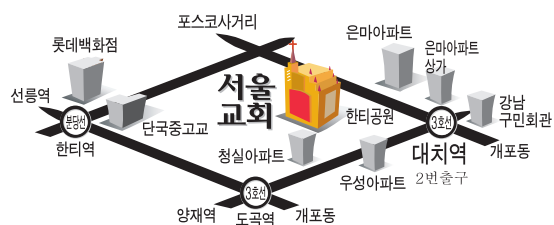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은 서울교회가 더욱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맡겨주신 비전들을 힘 있게 이뤄가도록
2. 임직 받은 3분의 장로님, 58명의 집사님, 그리고 85명의 권사님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3. 사명자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응답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